

가을철 돼지단독에 대한 주의점

9

9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이제 조금씩 날씨가 선선해 지고 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벌써 가을 환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여름내 열어 제쳤던 모든 구멍들도 단열 준비를 하고, 여름에 달았던 웬들 때문에 호흡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어제는 정기 방문하는 농장에 질병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환절기 준비를 환절기에 하는 것이 여러 농장들의 흔한 패턴이나, 본인은 항상 한 달 정도 빠르게 준비하라고 이야기 해 준다. 문제가 생겨서 대처를 시작하면 많은 비용을 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병 검사도 8월달에 가장 많이 실시한 것 같다. 가을 환절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채혈을 실시하다 보니, 모든 한 마리가 이상한 피부병을 앓았던 것처럼 피부에 딱지가 앉아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드문 드문 직사각형 무늬의 딱지인 것이, 단독을 앓고 지나간 흔적이었다. 그래서 그 동의 관리자를 불러서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물어보니, 식불이나 기타 증상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 다행이다.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 이런 저런 예방 처치를 알려주고 나의 일을 계속하였다.

생각해 보니 올 봄과 여름에 단독 증상을 많이 본 것 같다. 단독이 뭐 대수로운 질병이냐고 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 질병은 실제로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쉬운 말로 사람도 걸리고, 돼지도 걸린다는 말이다. 그래서 만약 도축장에서 발견되면 증상이 발현된 개체는 전부 폐기처리하게 되어 있다. 본인이 관리하는 농장에서도 단독 백신 접종이 누락되어 많은 개체가 도축장에서 폐기된 적이 있다. 한 마리가 얼마인데...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자돈에 백신을 접종하였다. 생각해 보면 올 봄, 여름의 단독 문제는 백신의 누락이나 항생제를 많이 사용한 부작용일 수 있다. 여러 농장에서 많이 관찰된 현상이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가을이 되면 돈단독이 또 증가할 수 있다는 노파심에 몇 자 적어 본다.

왜 이렇게 돈단독이 많아졌나?

첫 번째 원인은 백신의 누락이나, 자돈 구간의 항생제 사용 문제이다. 많은



김 경 진 원장
돼지와 건강 수의그룹

농장들이 돼지가 죽으면서 아예 돈단독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하더라도 항생제가 사료나 음수로 투약되면서 같이 접종된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돈단독 백신은 대부분 생백신 형태이다. 이 질환은 세균에 의해 발생되며, 백신은 세균을 약하게 해 놓은 상태다. 그러므로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사료나 물을 섭취하면서 백신을 접종하면 그 효과가 무지무지(100%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고 돼지가 죽는데 항생제는 안 쓸 수 없고, 또 백신을 해야 하고... 이중의 문제가 발생한다. 백신을 안 맞으면 또 비육장에서 문제고, 출하시 도축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참 큰일이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이 돈단독 백신을 접종할 때에 항생제 투약을 하고 싶으면 가능하면 음수로 하고 접종 전후에는 투약을 중지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투약은 하면서도 백신의 효능 감소 문제는 줄일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백신을 해도 돈단독 증상을 가끔씩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농장에서 호소하는 바인데, 특히 모돈의 경우 주기적으로 접종이 되어도 가끔 증상을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육돈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백신이 효능이 없는 것인지, 접종시 돼지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다른 수의사들도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백신의 효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일부 개체만 증상을 보이지, 대부분의 개체들은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백신이란 것이 100%



〈사진 1〉 PDNS 의심축. 이런 증상이 PMWS가 발생하면서 흔해 졌는데, 가끔 돈단독으로 의심 받는다.

완벽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동물용 보다 더 엄격한 사람의 백신들도 완벽하지 않으니 말이다.

셋째 문제는 돈사의 위생이다. 보통 돈단독이 발생하는 돈사들의 특징은 돈분을 잘 치우지 않거나 수세, 소독이 잘 안되는 농장들이었다. 이 질병은 돼지 자체의 분비물과 돈분을 통해서도 오염이 일어나는데, 돈사가 불결해서 계속 수평 감염이 발생하는 현상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 가끔은 한 비육사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다음 돼지를 넣을 시 수세와 소독을 완벽히 안하면 또 발생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본업이 수의사라서 특히 위생에 대한 개념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질병은 위생 수준이 낮을 때에는 근절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넷째는 이상한 피부병이 돈단독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많다. 〈사진 1〉을 보면 PDNS 의심축의 사진이다. 얼핏 살펴보면 단독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이런 피부병 때문에 농장을 방문한 적도 많다. 〈사진 2〉도 유심히 보길 바란다. 몇 년전에



〈사진 2〉 올 봄에 많이 발생한 정체 불명의 피부병. 이 증상도 단독으로 의심 받았다.

는 잘 보이지 않던 증상인데, 최근에 갑자기 많아진 피부병이다. 흑자는 돈두라고도 하고, 흑자는 곰팡이 독소 중독증의 일종이라고도 한다. 필자는 정확한 검사를 시행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단독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근래에 돼지들의 면역력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이러 저러한 피부병들이 다발하고 애매한 돈단독으로 물고간 사례들도 많았다는 걸 말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일단은 모든부터 단독 백신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 것이 일괄 백신이건, 분만후 백신이건 간에 백신을 빼먹으면 돈단독이 다발한 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가을 환절기부터 봄

환절기까지가 모돈에 다발하는 시기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백신으로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백신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또한 자돈도 마찬가지인데, 비록 사료나 음수에 항생제가 투여되었다고 하여도 백신을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는 것이다. 음수 투약을 주로 하게 되면, 백신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고 가능하다.

두번째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돈군의 면역력을 가능한 높여야 한다. 돈군의 면역력이 낮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농장들은 비단 돈단독 뿐 아니라, 유행성 폐렴, 위축성 비염과 같은 세균성 질환들도 흔하게 발생한다. 면역력 문제는 면역증강제를 먹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면역력을 악화시키는 질병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전문 수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비교적 쉽다. 최근의 컨설팅 농가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런 질병 문제의 도움이 가장 큰 요인이다.

환절기가 돌아온다. 봄에 질병으로 고생한 농장들은 또 질병으로 고생할 생각을 하면 머리가 좀 아플 것이다. 미리 미리 질병 점검도 실시하고, 대책도 세우는 9월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질병없는 안전돼지 사랑받는 우리돈육